

부끄러운 민주화보상법



김대호 칼럼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민주화운동 경력은 오랫동안 자부심의 원천이었지만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슬하게 목도하면서 이제 자괴감의 원천이 되었다.

14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은 또 한 번 나를 부끄럽게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가장 90일간 늦출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 6명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과 4월 전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당선된 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민주유공자법은 원래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직후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를 민주당이 확고히

장악하고 있을 때였지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결국 철회했다.

그러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작년 11월에 철회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엔 정무위에서 단독 의결된 법안은 전재수안을 토대로 정무위원장이 수정한 것이다. 수정 내용의 핵심은 예우(禮遇)를 제법 축소한 것이다.

우원식-전재수안은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과 대부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번에 의결된 안은 “의료·양로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론과 양심이라는 철조망 통과를 위해 낮은 포복 자세를 취한 것이다. 철조망 통과 후 어떻게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명분 자체가 4·19혁명 유공자 및 5·18 유공자와 민주 유공자에 대한 형평성이다. 법안의 원형(原型)은 2002년 1월 제정 후 무려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특권·특혜를 계속 늘려 온 5·18 유공자법이다. 5·18유공자법과 민주유공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민주 열사를 국가가 예우하라!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우원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법은 목적이 거의 같다. 전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것인데, 이번에 의결된 안은 똑같은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자리에 ‘민주화운동’을 집어넣으면 된다.

4·19혁명 유공자는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망자·부상자·공로자(건국포장을 받은 사람)로 국가유공자

법에 의해 선정돼 예우가 제공되고 있다. 예우 대상자 수도 적고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5·18유공자는 대상자도 훨씬 많은 데다 상대적으로 젊고, 무엇보다도 국가유공자법이 아니라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에 의해 선정돼 예우가 제공된다.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12일

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1979년 12월12일’을 집어넣어 그 시간·공간과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법 개정(2021.6.8)을 통해서다. 예우 대상자는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밖의 희생자의 유족과 가족인데, 진짜 문제는 예우 내용이 사회적 합의를 한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5·18유공자법은 5·18 관련자와 그 가족을 조선시대 반정공신 반열로 올린 법이자 사회적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버린 법안이다. 5·18유공자법에 비해 그 예우 수준도 낮고, 대상자 선정 절차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은 5·18유공자법의 전철(前轍)을 봤기 때문이다.

예우는 복직 혜택과 비슷해서 한번 제공하기 시작하면 줄이거나 끊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은 시간(1964년 3월24일 이후)과 공간(대한민국 전역)과 내용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애매하다. 민주유공자는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민주화보상법의

취지가 국민 화합에 있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조직적 사건(인혁당재건위사건·남민전사건 등)과 진압 경관을 살해한 폭력사건 연루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4·19혁명은 그 성격에 대해 논란이 거의 없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제법 논란이 있는데, 민주화운동은 그보다 논란이 훨씬 많다. 특히 그 사건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할 만한 민주화운동이냐고 따져 묻는다면 답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4·19와 5·18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한 사람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 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 능력이 없는 유족·가족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명예 회복과 의료지원·금전적 지원에 한한 것이지 입학·특혜나 취업 특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은 폐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대한 선 국가유공자법으로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우 내용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도류’ 오타니의 위대한 시즌 이제 시작



스포츠 세상

박병현 디지털뉴스국장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 선수(FA)로 최근 7억 달러(약 9200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에게는 ‘이도류(二刀流)’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이도류는 일본 검술에서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칼 또는 검을 들고 행하는 검술을 말한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도류’라고 하면 두 가지 포지션을 뛰어나게 소화하는 선수를 말한다. 오타니는 프로 야구선수로서 투수와 타자를 훌륭하게 겸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수와 타자 가운데 한 쪽에만 매진해도 성공하기 힘든 MLB에서 그는 두 역할 모두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며 야구사를 새로 쓰고 있는 개척자다.

사회인 야구선수로 뛴 아버지와 베드민턴 선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3남매 중 막

내로 태어난 오타니는 어릴 적부터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아버지는 운동을 잘하도록 특별 수단을 동원하는 강압적인 스타일이 아니었다. 경기 때마다 늘 전력을 다하라며 야구에 대한 태도를 일러준 게 밥상머리 교육의 전부였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함께 오타니가 다닌 고등학교 사사키 히로시 감독도 그의 인성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사사키 감독은 그에게 고교 시절 내내 숙소 화장실 청소를 맡겼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을 배운 것은 이때였다. “세상 꼭대기에 설 선수들은 하찮고 굶은 일도 해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두 차례 올림픽(2004년 아테네·2008년 베이징) 수영에서 금메달을 무려 14개나 획득한 ‘수영 황제’ 마이크 펠프스(미국)가 전성기 시절 하루 1만 칼로리를 섭취했듯 오타니도 하루 11공기씩 밥을 먹으면서 몸집을 키웠다. 비쩍 마른 몸의 4번 타자에 145km의 강속구를 던졌지만 벌크업된 이후엔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키는 193cm까지 자랐고 몸무게도 20kg이나 늘어 거구

가 되면서 구속은 세계 최정상 수준인 160km를 웃돌았다. 고교생 중에 그의 볼을 건드릴 수 있는 선수는 없었다.

웬만한 프로선수도 던지기 힘든 160km의 구속을 자랑하는 오타니는 일본뿐 아니라 메이저 리그 구단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 2013년 니폰햄에 입단한 그는 2015년 투수 3관왕(다승·승률·평균 자책점)을 차지하며 퍼시픽리그 최우수 투수가 된 뒤 2016년엔 최고구속 신기록 165km를 찍기도 했다. 니폰햄을 10년 만에 일본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것도 이때였다. ‘야구 천재’로서 이름값은 거의 다 이룬 셈이다.

일본에서 9년을 채우고 FA를 통해 미국으로 가면 더 큰 돈을 챙길 수 있었지만 하루빨리 최고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열망과 명예를 위해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입찰제)을 통해 LA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었다. 에인절스가 그를 영입하는 과정은 전성 수준이었다.

오타니와 자주 비교되는 ‘MLB의 전설’ 베이브 루스(1948년 사망)는 두 시즌만 투타를 겸했고 그나마도 꺼려 했다. 반면 타석에서 일을 낼 수 있다면 군말없이 달려



오타니 쇼헤이(왼쪽)가 15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앤드루 프리드먼 LA 다저스 야구운영부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나가는 오타니다. 우투 좌타인 오타니는 MLB 첫해 타자로서 22홈런·6타점, 투수로 평균 자책점 3.31을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AL) 신인왕에 올라 기대에 화답했다. 2023시즌 오픈에 앞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에서 오타니는 투타에서 맹위를 떨쳐 일본의 우승을 이끈 뒤 대회 MVP에 선정돼 진가를 떨쳤다. 신인왕-리그 MVP를 수상했지만 그를

진정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일 시즌에 투수로 10승, 타자로 40홈런을 기록한 일이다. 오타니의 기록은 154년 MLB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오타니는 타자로 타율 0.304·44홈런·95타점·20도루, 투수로는 10승·5패·평균자책점 3.14·탈삼진167개를 기록한 뒤 2024 시즌을 앞두고 6년간 활약한 LA 에인절스를 떠나 지역 라이벌 LA 다저스 유니폼으로

같이 입으면서 7억 달러라는 초대형 대박을 터뜨렸다. 5만원 권 100장의 두께는 약 1.1cm인데 9200억 원을 5만 원권으로 쌓으면 높이가 국내 최고층 빌딩 잠실 롯데타워(555m)의 3배를 넘는다. 오타니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FC 바르셀로나와 맺었던 6억74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몸값을 기록한 것이다.

오타니는 몸값만 높은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인성과 배려심도 갖췄다. 다저스의 성공을 위해 7억 달러를 계약 기간 내엔 받지 않고 이후에 받았다고 구단 측에 먼저 제안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팀 전체를 생각해서 이 같은 배려를 결정한 오타니의 뉘앙스는 ‘슈퍼 스타급’이었다. 모두가 놀랄 일이었다. 나이 서른 살도 되지 않은 청년의 생각치고는 기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월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은 그가 다시 투타 겸업을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린 시절부터 MLB 무대를 꿈꾸며 존경해 온 스키니 이치로·마쓰이 히데키 등을 한참 넘어섰다는 점이다. 오타니의 ‘위대한 시즌’은 이제 시작이다.

shinil

특허받은 신일 듀얼 자동칫솔

양방향 자동 회전 <DUPONT> 듀폰사 최고급 칫솔모

신일전자 공식스토어 바로가기